

삼국시대 : 등잔 추정 이형토기 기마인물형토기 등잔 ④

기마인물형토기(騎馬人物形土器)는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의 토기이다. 1924년 경주 금령총(金鈴塚)에서 한 쌍이 출토되면서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가 몇몇 나타난다. 사진①은 국보 제91호로 지정된 경주 금령총 출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자료가 있으며, 사진②는 경남대학교박물관 소장 자료, 그리고 사진③은 없지만 관동대학교박물관에 이와 비슷한 모양의 토기가 있다. 이 가운데 사진①은 한 쌍으로 보는데, 인물이나 말장식의 표현을 보아 주인과 그를 따르는 시종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넓적한 판 위에 서있는 말을 붙여 세우고, 말에는 안장을 비롯해 여러 가지 마구(馬具)가 잘 묘사되어 있다. 각기 사람이 탄 말은 몸통 속이 비어 있고 말의 가슴 앞쪽에는 비스듬하면서 위쪽으로 길게 솟은 주구(注口)가 있으며, 엉덩이 위쪽에 등잔의 형태처럼 둥근 잔이 얹어져 있다. 잔의 위쪽은 뿔러 있으며, 특히 주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잔에는 마치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처럼 잔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가늘고 길쭉한 돌기를 만들어 붙였다. 돌기부분이 많이 떨어져 나가긴 해도 토기의 원래 모습을 이해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기마인물형토기 역시 다른 상형토기와 마찬가지로 실제 등잔의 불을 밝혔기보다는 등잔(불)의 형상을 나타내어,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죽은 사람의 안식과 영혼을 위로하면서 사후세계에 대한 염원이나 상징적 기원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토기를 좀 더 살펴보면, 말안장 위에 올라 탄 주인의 모습은 모자[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다. 두 발은 발걸이[鐙子]에 걸쳤고 오른쪽 허리춤에는 칼을 차고 있으며, 손은 말의 고삐를 쥐고 있다. 말머리는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귀는 위로 쭉긋 세우고 꼬리는 밖으로 뻗어 있다. 이어 시종으로 보이는 토기의 인물 표현은 앞서 주인의 모습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서로 비교가 되는데, 우선 인물의 복식이 주인의 것보다 매우 간소한 편이다. 머리에는 관이 아닌 띠[帶] 모양의 장식을 하였고, 어깨에는 포대에 싣 짐을 메었으며, 손에는 무언가 물건을 들었다. 옷은 갑옷이 아닌 저고리를 입었으며, 소매가 좁고 바지의 끝자락 역시 좁아 보인다. 신분에 따른 격차를 고려한 듯 마구 또한 앞의 것에 비해 단출하고 간단한 꾸밈을 하고 있다. 두 점 모두 조형이 매우 사실적이고 정교하며, 6세기 전반 신라인의 복식과 마구 장식을 고증하고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서 사진③과 사진④의 빨간형 기마인물형토기가 있다. 이 가운데 사진③은 김해지역 출토로서 국보 275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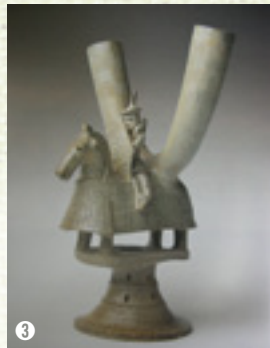


사진 ① 기마인물형토기(騎馬人物形土器) // 삼국시대-신라 6세기 // (좌) 높이 23.4cm, 길이 29.4cm, 너비 10.5cm, (우) 높이 26.8cm, 길이 26.8cm, 너비 9.9cm // 경주 금령총 출토 // 국보 제91호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137쪽.

사진 ② 기마인물형토기(騎馬人物形土器) // 삼국시대-신라 // 길이 30cm, 높이 22.5cm // 출토지 모름 // 경남대학교박물관 소장

사진 ③ 기마인물형토기(騎馬人物形土器) // 삼국시대-가야(伽倻) 5~6세기 // 높이 23.2cm, 바닥지름 9.2cm, 길이 13.1cm, 너비 14.7cm // 경남 김해지역 출토 //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138쪽.

사진 ④ 기마인물형토기(騎馬人物形土器) // 삼국시대-가야(伽倻) 5세기 // 높이 22.8cm // 출토지 모름 // 개인 소장(경주 이상운) // 동화출판공사, <<한국미술전집>> 3, 1978.

사진 ⑤ 말모양토기(馬形土器) // 삼국시대-신라 5세기 // 높이 12.6cm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출토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139쪽.



지정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자료이며, 사진④는 비슷한 양식의 개인 소장 자료이다. 앞서 소개한 것이 신라의 양식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사진③과 사진④는 가야의 양식을 대표하는 기마인물형토기이다. 형태를 보면 굽다리 위에 말과 무사(武士)가 표현되어 있는데, 말에게는 고구려 벽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의 말갈옷이 입혀져 있으며, 근래 함안 도항리 마갑총에서 발견된 철제의 말갈옷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이러한 갑옷이 실제로 제작,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¹⁾. 말을 탄 무사는 투구와 갑옷을 걸치고 있으며, 왼손에는 방패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있어 당시 가야전사의 생생한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말 등에 크게 표현된 두 개의 뿔잔은 이 토기가 술잔이든 등잔이든 비 일상의 제의(祭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방증해 준다.

또한 기마인물형토기에 비해 정교하진 않지만, 사진④ ~ 사진⑩처럼 인물 없이 말이나 사슴모양으로 빚은 동물형토기에 원통형 잔이나 뿔잔을 얹은 형태도 볼 수 있다. 몸통이 비어있고 안장 위쪽이나 뒤쪽에 그릇 아가리모양을 만들어 그 자체가 잔(술잔 또는 등잔)이 되거나 안장 쪽에 뿔잔을 붙여 사용하였다. 말과 사슴, 두 동물 모두 당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매우 귀중하게 쓰였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두 동물 모두 고대에 희생(犧牲)의 제물로 바쳐지던 동물의 하나이며, 당시 사람들에게 생업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두 동물은 장례 때 지상 세계와 하늘세계를 이어주는 영물(靈物)로 인식되어 송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장례 때 꺼묻거리[副葬品]로서 죽은 사람의 안식을 빌며 영혼을 저 세상에 운반하는 신수(神獸)로 여겨 장송의례에 공헌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 과정 속에 등잔(불)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후세계를 밝히고자 하는 빛의 상징이 매개한다. 



- 사진 및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 경북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도록>>, 1988
 - 디 아모레 뮤지움,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품 도록>>, 2005.
 - 온양민속박물관, <<金泰一所藏文化財圖錄>>, 1992.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디 아모레 뮤지움, 온양민속박물관, 호림미술관, 호암미술관
-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 사진 ⑥ 말모양토기[馬形土器]// 삼국시대-가야 5세기// 높이 19cm, 입지름 6.8cm, 밑지름 10cm// 출토지 모름//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 디 아모레 뮤지움,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품 도록>>, 2005, 223쪽.
- 사진 ⑦ 말장식뿔잔[馬上雙角杯]// 삼국시대-신라 5세기// 높이 19.5cm// 출토지 모름// 호암미술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140쪽.
- 사진 ⑧ 말장식뿔잔[馬上雙角杯]// 삼국시대-가야 5~6세기// 높이 24.4cm// 부산광역시 북천동 출토// 보물 598호//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김정완 · 이주현 지음, <<철의 왕국 가야>>, 국립중앙박물관, 2006, 70쪽.
- 사진 ⑨ 말장식뿔잔[馬上雙角杯]// 삼국시대-신라 5세기// 높이 21.5cm// 출토지 모름// 호암미술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141쪽.
- 사진 ⑩ 사슴장식뿔잔[鹿形土器]// 삼국시대-가야 5세기// 높이 20.2cm, 입지름 2.7cm, 밑지름 8.7cm// 출토지 모름//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 디 아모레 뮤지움,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품 도록>>, 2005, 221쪽

1)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137쪽 인용.